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

VOLUME 300 | JUNE 2022



VOLUMES
1-300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2년 6월호 / 통권 300호

발행일 2022년 6월 1일

발행인 정순택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2©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VOLUME 300 | JUNE 2022

Editor's Note	4
함께 읽는 성경	6 전쟁에 대한 교회의 입장
News & Views	11 직장사목팀 행사 및 소식
전례와 생활	12 미사 바로 알기 (8) - 거룩한 변화 16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교회의 가르침	20 창조와 신비 24 주문모 신부를 모셨던 3인방 - 윤유일 바오로, 최인길 마티아, 지황 사바
신앙과 삶	30 당신의 혼인생활은 안녕하십니까?
듣다 읽다 보다	34 고전 음악을 듣다 40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46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52 진료실에서 바라보는 세상이야기 56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THE COVER

통권 300호를 기념하여 역대 표지를 모아 보았다.



서울대교구는 1993년 11월, ‘주님이 함께하는 복음화된 소공동체를 통한 직장인 사도직 단체의 활성화’를 목표로 직장인 사목부를 출범하였습니다. 그 후 약 2년간의 준비를 거쳐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와 직장인 소공동체의 정보교류 및 직장 신자들의 일체감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1996년 1월에 통권 1호로 월보 『가톨릭 직장인』을 발간하였

습니다. 그로부터 26년이란 시간이 흘러, 이번 2022년 6월호로 통권 300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직장 사목부(팀)를 거쳐 간 지도신부님들과 『가톨릭 직장인』 발간을 위해 애쓰신 편집위원들 그리고 옥고(玉稿)를 게재해주신 필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통권 300호 발행을 앞두고 편집장의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통권 1호를 발간할 때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님의 발간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새겨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요약해 게재하려 합니다.

『가톨릭 직장인』 창간호 축하 메시지에서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님은 “서울대교구는 신앙과 삶의 불일치, 대형화에 따른 신자들의 익명화와 소외현상, 남성 신자와 청·장년층 신자 부족, 예비신자·영세자들의 감소, 냉담·거주 불명 신자의 증가 등은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이다.”라고 2000년대를 앞둔 서울대교구가 처한 당시 상황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 우리들의 생활을 복음의 빛에 비추어 변혁시키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소공동체 모습이야말로 2천년대 복음화를 향한 유일한 지름길”이라며, 소공동체운동을 제안하셨습니다. 26년이 지난 현재, 우리 서울대교구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금 성찰하게 합니다.

또한, 김수환 추기경님은 “최첨단 도시를 사목 지역으로 하고 있는 서울대교구는 도시 사회에 맞는 사목 형태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서울대교구의 본당 사목 구조는 대형화·비대화로 인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직장인 사목부는 이러한 사목 구조 하에서 오는 어려움을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

는 새로운 사목 형태입니다.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 안에서 자신이 신자임을 자각하고 신자로서의 소명을 펼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할 때 물질주의, 배금주의가 난무한 사회 흐름 속에서 신자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본연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터전이 되는 직장에서 소공동체를 통한 말씀 중심의 생활이 자리 잡을 때, 교구가 지향하는 소공동체 복음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직장 사목부의 사목 방향과 직장인 사목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정립해주셨습니다.

26년 전 처음 발행했을 때와는 월간지의 외적 형태나 내용들도 많이 변화되었지만, 변함없이 직장인 소공동체의 복음화와 직장인 신자들의 일체감 형성에 이바지하는 『가톨릭 직장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우식 스테파노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본부장

전쟁에 대한 교회의 입장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학교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매주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본문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필사해봅시다.

1. 전쟁에 대한 교회의 입장
: 탈출기 1장을 읽어보세요.

설마설마하던 전쟁이 유럽에서 일어났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해당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도 절대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외치던 사람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했다. 그런데 사실 인류 역사상 세상 곳곳에서 전쟁이 없던 날은 오히려 특별할 정도이다.

가톨릭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정당한 전쟁이론의 창시자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다. 그의 사상은 현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재산이나 생명을 하느님과 이웃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당방위라 해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주장의 결정적 요인은 정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적 사랑이다. 평화의 유지는 위정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 권리가 그에게 있고, 국민은 위정자의 명령이 하느님의 계명에 어긋나지 않는 한 복종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주장은 오늘날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에 의하면, 전쟁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이유는 중대한 침해자에 대해서 평화유지를 지향해야 하며 희생자에 대한 자비심을 잃지 않으면서 집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전쟁은 평화유지를 위한 경우에만 정당하고, 희생자에게 무자비할 수 없다.

2. 교황 비오 12세와 요한 23세의 가르침
: 사무엘 상권 8장을 읽어보세요.

그후 토마스 아퀴나스, 비토리아, 수아레즈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아우구스티노의 전쟁 사상은 정리되고 정교화되어 정당한 전쟁이론이 정립되었다. 전쟁이 정당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갖추어야 한다. ① 합법적 위정자가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②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③ 전쟁은 최후수단이어야 한다. ④ 올바른 지향으로 전쟁을 해야 한다. ⑤ 전쟁은 적절한 방법으로, 예를들어 무죄한 이들을 학살하지 않으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들에 의하면, 평화적 공동체에 가해진 전쟁행위에 대항하는 전쟁은 방어 전쟁이요 불가피한 행동이므로 특별한 도덕의 정당성이 요청되지 않는다. 평화에 대한 사랑과 전쟁에 따르는 인명살해와 파괴행위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그들의 문제였으며, 정당한 전쟁이론은 그 문제에 관한 해답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전쟁은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특수한 현장에서 비이성적인 행동이 난무하므로 이러한 제약들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톨릭 교회는 공격전쟁에 관한 전쟁이론을 더이상 갖고 있지 않으며 정당한 전쟁이론을 방어전에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현대에는 공격전쟁은 절대로 부당하며, 방어전도 정당한 전쟁이론의 조건을 갖추어야만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현대의 가톨릭 전쟁이론은 중대한 변화를 하였다고 보인다.

가톨릭 전쟁이론은 그리스도적 사랑, 정의 및 폭력행위들 사이에 조화를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 이론은 그 시대의 전쟁 기술과 파괴력을 염두에 두면서 전쟁의 목적과 행동을 제한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현대의 전쟁기술 발달과 극단적 파괴력을 고려할 때 변동된 전쟁이론이 발생하였다는 것

은 이해하기 쉽다. 현대 가톨릭 전쟁이론은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 원리로 요약된다. ① 공격 전쟁은 언제나 부도덕적이다. ② 방어전은 도덕적으로 정당할 수 있다. ③ 방어전 준비는 도덕적으로 합법적이다. ④ 양심적 병역 거부는 도덕적으로 정당할 수 없다. ⑤ 전쟁은 최후 수단일 경우만 정당화될 수 있다. ⑥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⑦ 무기의 사용은 제한되어야 한다.

교황 비오 12세는 1944년 성탄절 메시지에서 공격 전쟁을 국제적 분규의 해결방법이나 국가적 야심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분명히 선언하였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현대 전쟁무기의 파괴력이 극심하기 때문에 공격전쟁은 분규의 해소방법으로는 더이상 적합하지 못하고, 둘째로, 그것은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기구를 창설하는 인간의 창의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국경을 넘는 것이 공격행위로 간주되었으나 현대의 전쟁은 국경선의 월경행위가 불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경 너머로 무기를 쓰는 행위도 공격행위가 된다.

3. 방어전쟁의 정당성

열왕기 하권 13장을 읽어보세요.

가톨릭에서 방어전쟁이 도덕적으로 정당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교황 비오 12세는 대량 파괴력을 가지는 원자무기·세균무기·화학무기의 시대에도 인간공동체에는 부당한 공격에 대항해서 전쟁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들이 있는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이것은 현대에도 때로는 방어전쟁이 도덕적으로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방어전쟁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방어전쟁이 정당화되려면 몇 가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언급은 부당하고 과도한 방어전쟁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까다롭고 중대한 문제는 공격전쟁과 방어전쟁을 구별하는 일

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처럼 국제적 상호 의존성이 높은 경우에는 공격행위는 무기 사용과 국경 침범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자원이 무기로 사용되고 물, 원유, 곡물의 단절도 매우 효과적 공격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방어전쟁이 정당할 수 있다면 그 준비도 정당해야 한다. 중대한 국제분규가 계속되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없는 한, 모든 국가는 방어 준비의 권리를 갖는다. 이 원칙은 무기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침략의 위협을 알면서도 국가는 오히려 자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요즘도 가끔 문제가 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부당성도 교황 비오 12세는 가톨릭 신자가 국가에 대한 자신의 봉사를 거부하고 법률이 정하는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근거로 양심을 내세울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국민이 무조건 전면전쟁과 무기 경쟁의 정책을 지지하고 전면전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 원칙은 정부는 합법적이고, 그 결정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며, 방어전쟁을 위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4. 전쟁은 최후의 수단

이사야서 2장을 읽어보세요.

전쟁은 모든 분규 해소의 방법을 전부 사용해본 후 최후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만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전쟁의 물리적 내지 도덕적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극심하므로 회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모든 수단이 효과 없이 사용되었고, 최후수단으로 전쟁만이 남아 있다고 판정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방어전이 최후수단임을 알기 쉬우나, 전쟁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공격을 받는 경우에 전쟁이 최후수단인지 판정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방어전에 있어서도 무기 사용의 제한원칙이 의미하는 것은

비전투적 요원이 보호되어야 하고 공격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좀 더 근본적인 가톨릭 윤리 원칙, 즉 무죄한 인간을 직접 공격하고 살해하는 것은 언제나 비도덕적 행동이라는 것이다. 비전투적 민간인은 무죄한 인간이며 따라서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야 한다.

5. 가톨릭 전쟁이론에 대한 비판

가톨릭 전쟁이론은 현대 상황에서는 적합성 없는 이론이라고 비판받는다. 현대 상황에서는 전투요원과 비전투요원을 구별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고 지역폭격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의 전쟁이론은 너무 추상적이고 실천성이 없다는 것이다. 자칫 가톨릭의 전쟁이론은 터무니없는 공론(空論)에 불과할 수 있다. 특히 가공할 파괴력을 가지는 현대적 핵무기를 사용하는 핵전쟁의 도덕성 문제를 생각하고 따진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가톨릭 교회의 전쟁이론은 전쟁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인간에게는 이상의 두 가지 선택만이 있다는 주장을 거부하고 제3의 선택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톨릭 전쟁이론은 전쟁을 포기하는 평화주의와 핵전쟁의 도덕성 연구에 대한 포기는 성급한 태도라고 배척하면서도, 제한적 전쟁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물론 실제와 이론적으로도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대화와 공존을 추구하며 종국에는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아야한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

가톨릭 직장인 후원금 안내 

1. 개인 후원: 1구좌 당 70,000원
2. 교우회 후원: 1구좌 당 300,000원 (월보 지면에 광고 게재 가능)
3.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784447,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4. 문의: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2-727-2078, 010-4799-2078 / gikjang@catholic.or.kr

2022년 예비자교리 현황

2022년 직장공동체 예비자 교리를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예비자교리를 하시는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교리기간 : 4월 18일-11월 11일, 총 30주, EDWITH를 이용한 비대면 교리
 참고피정 : 11월 12일(토) 09시 30분~16시, 영성센터 B201
 세례성사 : 11월 20일(주일) 13시 30분, 명동대성당
 문의전화 : 02-727-2078

교우회명	국회	서대문구청	시립은평병원	제주항공	SC은행	총
인원	3	1	3	2	2	11명

미사 바로 알기 (8) - 거룩한 변화

전호엽 프란치스코 신부_ 사제평생교육원 부원장

성찬의 전례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면 성찬 전례의 핵심인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파스카 희생제사를 제정하시던 그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쟁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던 그 감사제가 이제 성찬례를 집전하는 사제의 손으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감사기도

성찬례는 무엇보다 성부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이며,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찬미의 제사입니다. 감사기도는 감사의 제사인 미사 전례의 중심과 절정을 이루는 장엄한 기도로서, 사제가 전 공동체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를 바치는 감사와 축성의 기도입니다(「미사경본 총지침」 78항 참조). 초세기 주교들은 감사기도를 자유로이 기록하고 낭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레고리오 1세(590-604) 교황 때에 하나로 고정된 감사기도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혁 이후 세 가지 양식을 추가로 더하게 됩니다..

감사송과 거룩하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로 시작되는 사제와 신자들의 대화는 성찬례를 거행하는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가 현존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이어지는 감사기도를 합당하게 준비하게 합니다. 이어서 사제가 양손을 들어 올리며 “마음을 드높이” 하고 말하면, 교우들이 “주님

께 올립니다” 하고 응답합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제의 “손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 들어”(애가 3,41) 올리고, 바로 사도의 권고처럼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자는 말입니다(골로 3,1-2 참조). 그리고 마지막 대화에서 사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창조와 구원에서의 하느님의 크신 업적에 대한 감사를 권고하고 신자들은 환호로 동의하는데, 이러한 형태는 이어지는 ‘감사송’과 ‘거룩하시도다’를 환호하는 데서 반복됩니다. 감사송에서 전례력에 따라 구세사의 특징을 진술하면서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기도하면 신자들은 더없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환호로 응답합니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축복을 베푸시고 인간이 그런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사제와 모든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청원과 은총

편의상 서 있는 곳도 많지만, ‘거룩하시도다’가 끝나면 신자들은 미사 전례의 가장 거룩한 순간에 들어간다는 표시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함께,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내리시어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고,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청하는 ‘성령 청원’이 시작됩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감사기도 2양식)

사제는 이 기도를 바칠 때 안수와 십자 표시를 하는데, 안수는 성령 역사의 표시이며, 십자 표시는 축성의 전형적 표시입니다. 사제가 제대에 놓인 빵과 포도주 위에 두 손을 펼치며 청원하는 성령은, 신자들을 ‘한 몸으로’ 모아 아버지 마음에 드는 영적 예물이 되게 하는 바로 그 성령입니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감사기도 2양식)

이렇게 성령 청원을 통하여 두 가지 선물이 우리에게 옵니다. 첫째, 성령의 힘으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에페 4,13) 됩니다. 사제는 성령을 통해 희생 제물 위에 은총이 내리고 모든 영혼이 뜨거워지도록 청하는 것입니다.

축성을 통한 거룩한 변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축성문’은 예수님께서 최후만찬 때 빵과 포도주를 들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 바치는 경문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위를 통해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거룩하게 변화합니다. 과거의 십자가상 구원의 희생제사를 단순히 기억하고 회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희생제사를 ‘지금 여기에’ 현재화하는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성찬례입니다.

성체와 성혈을 들어 올림

거양성체는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고 나서 성체를 들어 올려 신자들에게 보이는 예식을 말합니다. 중세 시대에는 오늘날과 달리 제대가 벽 쪽으로 향해 있고 사제가 신자들을 등지고 미사를 드려서 신자들이 제대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축성된 성체를 바라보고자 하는 신자들의 열망은 1200년경에 와서야 채워지게 됩니다. 성혈이 담긴 성작의 거양 예식은 그보다는 조금 늦게 도입되었습니다.

신앙의 신비

성체와 성혈의 축성에 이어 사제는 ‘신앙의 신비여’라고 외칩니다. 회중은 이 신비가 십자가상 희생제사의 재현임을 굳게 믿고,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1코린 11,26)라는 말씀에 따라 이 구원의 신비를 전례 거행에 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전하고 선포하겠다고 환호로 고백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은 보고 만져보아도 알길 없는 그 자리, 인간의 오관으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노래했나 봅니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으나 우러러 뵈을수록 전혀 알 길 없습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 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보지는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 앓아오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성 로무알도

St. Romuald (축일: 6월 19일)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_작은형제회

우리나라에는 천년사찰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꽤나 있습니다. 안동 봉정사, 영주 부석사, 양산 통도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가 모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천년이 넘는 시간을 한결같이 버틸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리고 자주 이런 사찰들과 서방의 베네딕도회 계열의 수도승원들이 견주어 회자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성인이 바로 서방의 베네딕도회 계열의 수도승원 가운데 하나인 ‘까말돌리수도회’를 창설하신 성 로무알도 아빠스(952-1027) 이십니다. 이분이 세우신 수도회의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수도회의 영성과 창설자로 인하여 한국에 먼저 깊이 알려진 것이 아니라, 그 수도회에서 판매하는 천연 화장품이 한국에 많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고가에 판매가 되면서 알려진 면이 더 큼니다. 그렇지만 이번 호를 통해 까말돌리 수도회의 창설자이신 성 로무알도 아빠스의 삶과 영성을 제대로 파악하도록 합시다.

우선 이분의 이름인 로무알도Romualdo의 어원과 의미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무알도는 합성어로 이뤄진 이름인데, 고대 독일어로 ‘흐롬hrom’은 ‘명예,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발단valdan’은 고딕어(고트 민족어)로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설에서는 이어지는 단어가 고대 독일어의 ‘발트wald’라고 하여 ‘숲, 삼



림’에 해당되는 말로 보기도 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 모두를 고려해도 로무알도Romualdo라는 이름의 뜻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보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숲에서 숨어서 다스리는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인께서 수도생활을 시작한 동기가 자신의 명예를 완전히 부인하면서 숲으로 숨어드는 은수생활의 오솔길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성인은 본디 이탈리아 라벤나Ravenna 지역의 세르지오Sergio 공작 가문에서 951년경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잘 자랐으나, 아버지가 토지 소유 분쟁 때문에 작은 아버지를 살해하자 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라벤나 지방 클라세Classe에 위치한 성 아폴리나리스 베네딕도회 수도승원에 3년간 피신시켰습니다. 그 기간동안 성인은 정말로 진지하게 수도성소에 대해 느끼게 되었고, 20세가 되던 해에 그 수도원에 입회하였습니다.

이 클라씨의 베네딕토회 수도승원에서 살면서 로마알도 성인은 좀 더 엄격한 수도생활을 원하게 되었고, 아빠스의 허락 하에 베네치아의 은수자 마리누스 Marinus를 찾아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동방의 모델을 따라, 서방 수도원에서는 처음으로 고독한 은수생활에서 스승과 제자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수도승원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알도 성인은 약 1023년경에 까말돌리 수도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이곳에서는 기존의 베네딕토회가 해오던 장상의 지도나 규칙의 안내 없이 각자가 은수처를 갖고 생활하는 새로운 은수자 수도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수처는 로마알도 성인에게 깊은 고요 속에서 통회와 기쁨의 눈물을 하느님께 바치면서 그분의 현존을 확신하고 증거하는 삶을 숲 속에서 숨어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마알도 성인의 까말돌리 수도원은 엄격한 고독과 침묵, 그리고 단식 등의 참회의 모습은 고대 이집트 독수 수도승 생활을 모방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베네딕토회의 성규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은수처에서 식사 등을 해결하지만, 전례만큼은 공동의 경당에 모여서 함께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또한 베네딕토회 개혁운동의 하나의 줄기로 자리잡은 것입니다. 로마알도 영성은 고독이며, 그것은 곧 의지적인 순교가 됩니다. 하느님과 깊이 대화하고 악마와 맞서는 영적 투쟁이 고독이라는 양식으로 표현되었기에, 고독은 그들의 은수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양식이 되었습니다. 다만 고독하더라도 서로 형제애를 나누는 것은 결코 간과되지 않았으니, 그야말로 친교를 중심으로 삼는 은수생활과 수도승원의 모습을 잘 조화시킨 모습입니다.

인간은 정말 외롭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각자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단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 앞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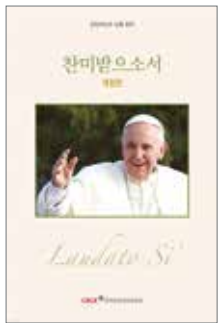
고독을 스스로 자청하면서, 이런 인간의 근본적 고독의 뿌리인 자기중심성을 깊이 관상하고 성찰한다면, 역설적으로 거기서부터 바로 사랑의 샘이 흘러넘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알도 성인처럼 하느님 안에 숨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주님의 자비로 성인의 명성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마태오 복음 23장 22절의 말씀대로 사신 분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마태 23,22)**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생태적 회심: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창조의 신비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찬미받으소서 | 프란치스코 교황 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2015년 9월 5일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과학과 종교가 서로 상충하기보다는 “각자의 고유한 현실 접근 방식으로, 서로에게 생산적인 진지한 대화”(62항)를 나눌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열린 태도로 제2장은 성경에서 생태적 지혜를 찾을 뿐 아니라 현대 자연과학이 제시하는 우주론적 관점도 포함합니다. 특히 창조와 진화의 통합적 전망을 제시했던 떼이아르 드 샤르댕 신부님을 언급할 만큼 회칙은 진화론을 수용하면서 그것을 창조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새로운 우주론의 지평 위에서 세상 창조의 신비를 현대인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 사랑으로부터의 창조

「찬미받으소서」 회칙이 태초의 창조와 진화 개념을 모두 받아들이는 ‘진화론적 유신론’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물질이 우연히 또는 저절로 결합해서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보는 무신론적 진화이론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칙은 우주가 하느님 “결단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지 혼돈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77항)을 분명히 합니다. 만물은 창조주 하느님께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창조는 “하느님께서 손을 내미시어 주신 선물”(76항)이라는 것이지요.

우주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회칙은 이 세상이 “자의적인 전능, 곧 힘의 과시나 자기 과시의 욕망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77항)에 따라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우주 창조의 근본적인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태양과 별을 움직이는 사랑”(77항)이신 창조주는 모든 피조물에게 각자의 자리를 세상에 마련해 주시고 당신의 넘치는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다시 말해, “가장 하찮은 것의 덧없는 생명조차도 하느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아주 잠깐 살아 있어도 하느님께서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십니다”(77항).

진행 중인 창조

창조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하느님 창조 사업이 역사 속에서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린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은 끊임없이 생명의 원천으로 당신을 내어주시고, 이 우주의 여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주시는 ‘거룩한 신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거룩한 현존은 모든 존재의 생존과 성장을 보장해 주며, 창조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갑니다”(80항). 이런 점에서 하느님의 창조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창조가 진행 중이라는 회칙의 가르침은 현대 과학이 설명하는 우주 진화에 관한 이론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138억 년 전 우주 대폭발(빅뱅) 이후 우주가 형성되어온 과정과 지구상의 다양한 생명체들의 등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를 종합해볼 때 우리는 우주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실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 진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신앙적 고백을 좀 더 깊이 성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진행 중인 창조의 측면에서 보자면, 세상은 완결된 상태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창조는 어떤 존재들의 출현과 더불어 다른 존재들의 소멸을, 더 완전한 것과 더불어 덜 완전한 것을, 자연의 건설과 더불어 파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은 이 과정에서 팔짱을 끼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을 매 순간 존재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시고 완성으로 이끌어주십니다. 그래서 만물은 “하느님의 초월성에 열려 있고 그 안에서 발전”(79항)할 수 있으며, 궁극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곧 창조 세계는 아무런 방향성 없이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충만”이라는 목적으로 “공동의 도착점, 곧 하느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83항).

피조물의 자율성

하느님은 세상의 생명을 유지하고 풍요롭게 하시지만, 그렇다고 그분의 지속적인 창조 활동이 피조물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은 이 세계를 ‘가능성’으로 채우시고 그 고유한 자발성을 존중하시며 스스로 새로운 것을 나타내도록 생기를 불어넣어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께서 “피조물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시면서 모든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에 현존하시어”(80항), 그분이 각각에게 부여하

신 내적인 법칙들에 따라 피조물들이 스스로 발전해 나가도록 허용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느님의 창조는 “마치 배를 만드는 사람이 나무에 스스로 배의 형상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80항).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창조를 하느님께서 마치 강력한 마술 지팡이로 단번에 이루신 일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발전해야 하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느님께서 어느 정도 자제하고자”(80항) 하셨고, 그래서 만물은 고유한 자발성 안에서 발전하고 그들의 충만함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창조를 너무 좁게 생각해서 창조주가 그 모든 과정을 뒤에서 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이 세상은 꼭두각시들의 쇼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을 향하여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실재입니다.

요컨대, 창조주 하느님은 단순히 우주 밖에 홀로 계시는 만물의 제조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 세계 안에 계시면서도 피조물의 자율성을 배려하는 가운데 모든 창조가 ‘이루어지도록’ 부추기십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창조의 여정에 우리네 인간도 협력하도록 초대하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하는 노력은 하느님 창조 활동에 협력하는 일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공동의 집 지구를 돌보는 일은 단지 자신의 생활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일에 그치지 않고,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창조 과정에 대한 ‘신성한 참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피조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아닙니다”(83항). 그러나 지성과 사랑이 부여된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그들의 창조주께 인도하라는 부르심”(83항)을 받습니다. 푸름으로 가득한 6월, 여러분은 어떤 구체적 실천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느님의 창조 여정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까? ☺

순교자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회사

주문모 신부를 모셨던 3인방

윤유일 바오로, 최인길 마티아, 지황 사바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한국교회의 시작이 선교사 없이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신앙실천 공동체로 출발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직자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성사를 거행하는 것이 독성죄임을 인지한 그들은 북경에 밀사를 파견하여 성직자를 영입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 공동체가 시작된지 10여년 만에 주문모 신부를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문모 신부를 모셔오고 측근에서 모시다가 순교했던 세 분의 복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두 번 연달아 고난의 밀사로 다녀오면서 구베아 주교를 만나 사목 지침서와 성직자 파견의 약속을 받아 온 이가 **윤유일 바오로** 복자입니다. 권일신으로부터 교리를 배우고 천주교에 입교한 윤 바오로는 북경으로 파견되어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문의하게 됩니다. 조선의 밀사는 보통 압록강이 언, 겨울철 동지사 등의 사행원 사이에 자리를 얻어 비밀리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승훈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라몽(Grammont, 梁棟材) 신부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회는 이미 1773년에 해산명령을 받았고, 그라몽 신부도 북경에서 갖고 있던 관직을 끝내고 마카오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윤유일은 그 대신 라자리스트회의 선교 단장인 로(Raux, 羅廣祥) 신부를 만났습니다. 로 신부는 윤유일에게서 조선교회에 대한 자초지종을 듣고, 1790년 2월 9일 ‘바오로’라는 세례명으로 ‘조건부 세례’를 주었습니다. 조선에서 받은 세례는 유효했지만, 조선인들 스스로 성사를 주고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로 신부는 아마도 세례



윤유일 등 조선 교회의 초기 신자들이 외우던 언문체 '주님의 기도' (1999년 윤민구 신부가 영국에서 발견함).

에 대한 의심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화가였던 판지(Panzi) 수사는 윤유일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로 신부는 윤 바오로에게 좀 더 교리를 가르쳐 준비시킨 후 구베아 주교에게 보냈습니다. 구베아 주교는 놀라운 섭리로 시작된 조선교회의 소식에 기뻐하였고, 윤 바오로에게 견진 성사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윤유일이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정식 견진을

받은 신자가 됩니다. 주교는 명주에 글을 써서 즉시 성사를 중지하고 기도문을 외울 것, ‘상등통회’(즉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교리)에 의지하며 성직자를 기다릴 것 등, 여러 가지 지침을 전해주었습니다. 윤투일은 6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북경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직자를 보내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미사 준비를 위한 전례도구 및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때 조상제사 금지 및 위패를 모실 수 없다는 교회의 지침까지 받아오게 됩니다.

윤투일은 양반이었기 때문에 제사 금지가 가져다 줄 위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교님께 그러한 교회의 조처에 대한 관면을 청해보았지만, 구베아 주교는 원칙을 고수하였습니다. 그 이듬해 1791년 진산에서 윤지충, 권상연이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과 지침을 따르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구베아 주교는 바로 성직자를 보내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왜 한참 뒤에야 주문모 신부가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구베아 주교는 윤투일에게 약속을 한 후 마카오 출신 레메디오스 신부를 선교사로 파견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산사건’의 여파로 조선 신자들은 레메디오스 신부를 맞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기하던 선교사는 병으로 선종하였고, 대신 북경신학교 1회 졸업생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선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윤투일 바오로가 밀사로 성직자 영입을 도모하는 동안 한양에서는 중인 최인길 마티아가 주문모 신부의 집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795년 초에 윤투일과 지황의 안내로 주문모 신부는 한양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주문모 신부에게 조선 문화와 말을 가르쳐 준 이는 역관이었던 최인길 마티아였습니다. 그해 성주간에 미사와 고해성사가 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대세(代洗)를 받은 이들에게는 보례(補禮), 즉 세례의 부족한 예식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해 주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에서 조선 신자들을 위한 정식 성사와 미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입국 6개월만에 한영익이라는 예비신자의 밀고로 주문모 신부의 거처가 알려졌습니다. 포도대장 조규진은 6월 27일 주문모 신부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다행히도 밀고자의 행동을 알게 된 교우들이 이 소식을 주 신부에게 알렸고, 최인길은 야고보 신부를 강완숙 골룸바의 집으로 피신시킨 후 홀로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중국인은 어디 있느냐?” - “나요.” 최인길은 마치 예수님이 끌려가듯 주문모 신부를 대신하여 체포되었고, 윤투일과 지황도 함께 끌려와 심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분에 대한 평가는 구베아 주교의 1797년 8월 15일자 서한에 잘 나타납니다.

“저와 이 북경교회는 지난 1790년 윤 바오로가 북경을 두 번이나 다녀갔을 때, 윤 바오로의 신앙심과 경건함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당시 윤 바오로가 어찌나 놀라울 정도로 열심한 마음과 모습으로 견진성사와 고해성사 그리고 성체성사를 받던지, 북경의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은 윤 바오로가 신입 교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복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완숙한 경지에 이른 오래된 천주교 신자들한테서나 볼 수 있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얼굴과 언행 그리고 덕망 있는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고는 모두들 쏟아지는 눈물을 억제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저희는 또한 지난 1793년 지사바의 신앙심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 당시 지 사바는 북경에 40일 간 머물렀는데, 견진성사와 고해성사 및 성체성사를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열심히 받았기 때문에 북경 교우들은 그 신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최 마티아의 경우는 북경에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삶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저희는 조선에 간 선교사가 보낸 보고서를 통해 최 마티아는 ... 놀라운 열정과 믿음과 신심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윤 바오로는 로 신부에게 당시 외우고 있던 한글 ‘주님의 기도’를 써 준 바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필사본이 영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천주경(天主經)을 한글발음 그대로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在天我等父者 我等願爾名見聖 ... 재천아등부자 아등원이명현성...

1838년 앵베르 주교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초기 천주교 신자들은 기도문을 바칠 때는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기에 언문(諺文)이 아니라, 한자어로 발음해서 바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앵베르 주교는 기도문의 뜻을 잘 알 수 있게 뜻을 번역하여 바칠 수 있도록 새롭게 개정하였습니다. 세 분의 순교복자들이 바쳤던 최초의 주님의 기도를 한번 바쳐볼까요?

재천아등부자 아등원이명현성 이국님격 이지승힐 어디 여어천언

在天我等父者 我等願爾名見聖 爾國臨格 爾旨承行於地 如於天焉

아등망이 금일여아 아일용냥이면아채 여아역면 부아채자 우불아히 함어
유감 내구아어홍악

我等望爾 今日與我 我日用糧而免我債 如我亦免 負我債者 又不我許
陷於誘惑 乃救我於凶惡

아몽
亞孟

최인길이 주문모 신부 대신 체포된 이후, 윤 바오로와 지 사바 그리고 다른 교우 5명도 곧 체포되었습니다. 5명의 교우들은 신부 영입에 참여하지 않은 관계로 석방되었고, 신앙이 굳세었던 3위의 교우는 고문을 견디다가 그 날 밤 옥에서 처형되었고, 그 시신은 한강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795년 6월 28일이었습니다.

지황 사바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의 집안은 단양(丹陽) 출신으로 그 아버지가 궁중 소속 악사로서 고위직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그도 아버지처럼 악사였고,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천성이 순박하고 온화하며 근면하였습니다. 거기에 천주교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온 몸으로 천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들 세 분이 체포된 다음날 순교한 사건을 가리켜 **복산사건, 을묘실폐사건**(곧 1795년 주문모 신부 체포 실패 사건)이라 부릅니다. 이처럼 주문모 신부를 모셔오고, 목자를 위해 희생한 세 분의 양들은 윤지충, 권상연과 함께 초기 5인의 **조선 순교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

묵상

자신의 재능으로 교회의 일에 봉사할 수 있는가?

윤유일 바오로의 성실함과 열정, 최인길 마티아의 통역과 언어교육 능력, 지황 사바의 음악적 재능, 이 모든 것이 주문모 신부의 6년간의 사목생활과 순교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혼인생활은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 삶을 바라본다.

결혼 28년 차인 요세피나는 이혼하는 부부들이 말하는 ‘성격차 이가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심지어는 중년부부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졸혼도 생각 중이다. 신혼 초부터 남편 요한과 함께 본당에서 각종 봉사활동과 ME활동을 하며 큰 갈등 없이 지내왔고, 작년엔 부모님의 도움으로 결혼 후 처음으로 부부 공동명의의 집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다. 내 집 마련 이후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남편이 그동안 미루어 왔던 취미생활을 하고 싶어 하고, 그 비용을 마련하려는 과정에서 부부간의 생각이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요세피나는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대출이자와 원리금 상환을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데, 요한은 오히려 추후 퇴직금 등 여유자금이 생길 거라며 힘들게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특히 이번에 동호회 활동을 계획하면서 본인의 입장만을 강하게 고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운한 마음이 앞섰다. 본인의 취미생활 보다는 가정을 먼저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Question

결혼생활을 하면서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던 고비가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에페소서 5장 30절부터 3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부부의 온전한 일치 를 위해서 나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사랑은 혼인의 고유한 행위로 독특하게 표현되고 완성된다. 따라서 부부가

친밀하고 정결하게 서로 결합하는 행위는 아름답고 품위 있는 행위이다. 참으로 인간다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위는 상호 증여를 뜻하고 복돋우며, 기쁘고 고마운 마음으로 서로 풍요롭게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목헌장 49항 중에서]

5. 실천계획을 세운다.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부부의 기도

저희와 함께 계시면서

보살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에게 서로를 선물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혼인성사로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시고

오늘까지 혼인 계약을 충실히 지키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장애물을

당신 손수 치워주시고

서로에게 충실할 수 있는

마음과 의지를 주소서.

베풀수록 받는다는

어리석음의 지혜를 갖게 하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쳤을 때는 용기와 힘을,



낙담하고 실패할 때는 위로와 격려를 주소서.

언제나 섬세하고 부드럽고 친절하도록

늘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소서.

서로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저희가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며

서로를 보완하여 완성하는

기쁨을 허락하소서.

언제까지나 소중한 존재로 곁에 머물며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고전 음악을 듣다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D단조 Op.15 -
피아노로 쓴 ‘베네딕투스’

조병선 바오로 청주대 법학과 교수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은 이전 호에서 설명한 것처럼, 직접적으로는 1854년의 충격(슈만의 자살 기도)으로 급진전을 이루었고, 브람스는 독일 레퀴엠을 완성하여 돌아가신 어머니와 스승 슈만을 위로하였다. 그런데 1854년의 충격으로 탄생한 또 한 곡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피아노 협주곡 1번 D단조 Op.15이다. 브람스는 슈만의 자살 기도 소식을 듣자마자 뒤셀도르프 슈만의 집으로 7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클라라를 도우려 단숨에 달려갔었지만, 정신병원에 입원한 슈만은 끝내 1856년 사망하였다. 브람스는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클라라를 염두에 두고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연탄곡(듀오)’로 시작하였으나, 브람스는 자신과 클라라의 듀오로 추정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도중에 피아노 협주곡으로 바꾸고 말았다. 브람스가 완벽하게 없애버려 아쉽게도 피아노 듀오의 악보는 흔적도 남아있지 않는데, 아마도 브람스의 슈만에 대한 무의식적인 죄책감에서 비롯되었는지 모르겠다. 슈만 사후, 브람스는 스

위스로 막 출산한 클라라와 남은 자녀와 함께 위로의 여행을 다녀온 후, 두 사람은 1957년부터 평생 독신으로 각자의 길을 간다. 클라라가 연민에서 사랑으로 바뀐 채 각인된 청년 브람스의 고독은 얼마나 깊었을까. 참고로 1859년 브람스는 괴팅겐에서 잠시 사귀었던 아가테 폰 지볼트와 약혼하였다가 이내 곧 파혼하였다. 마음 속 깊이 자리잡은 클라라를 지우기란 이토록 힘들었으리라. 이렇게 브람스-슈만-클라라로 이어진 ‘트라이앵글’은 이번 호에 소개할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20대의 혈기왕성한 브람스의 그 격정의 시기에 작곡된 만큼, 제1악장은 D단조 화성의 폭발로 시작한다.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이 우리를 전율케 하는데, 당시 브람스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만하다. D단조는 베토벤도 9번 교향곡 1악장에서 ‘빅뱅’과 같은 천지개벽의 시작으로 사용하였던

Johannes Brahms: Piano Concertos
András Schiff (piano/director), Orchestra of the Age of Enlightenment
Release Date: 4th Jun 2021
Catalogue No: 4855770
Label: ECM
Length: 94 minutes

Gramophone Magazine-Critics' Choice 2021
Presto Recording of the Week-4th June 2021
Recording of the Month
-Gramophone Magazine July 2021
-Presto Recordings of the Year Finalist 2021
Nominated
-ConcertoInternational Classical Music Awards 2022
-Concerto The Guardian Classical Albums of the Year 2021



조성이다. 모차르트도 D단조를 ‘돈 조반니’가 지옥으로 떨어질 때, 또 자신이 가장 암울하였던 시기에 작곡한 피아노협주곡 20번에 사용하였다. 천둥과 벼락이 내리친 후(서주), 드디어 조용히 등장하는 주제는 1, 2주제 모두 차분하고 따스한 위로가 가득하다. 특히 제2주제는 북독일 루터교의 사랑의 코랄로 들린다. 관현악 제시부에 이은 피아노의 제시부에서 피아노가 주제들을 차분하게 쳐내려갈 때 더 그러하다. 피아노와 대비되는 관현악의 난폭할 정도의 폭발력과 그 질감은 이른바 ‘왕범의 교향악적 질식(symphonic boaconstrictor)’이다. 이는 마치 커다란 구렁이가 목을 졸라 질식시키는 듯한 두꺼운 무게감을 뜻하는데, 부르크너(Bruckner) 교향곡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원조는 브람스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휘몰아치던 격

정이 잠잠해질 때 피아노가 ‘솔로 호른’이 ‘콜’ 할 때(이른바 ‘Horn Call’) 응답하여 듀오로 전원적 목가를 노래하면 그 사랑은 처연하기까지 하다.

제2악장 Adagio의 첫 다섯 마디는 베네딕투스(Benedictus, qui venit, in nomine Domini,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이다. 베네딕투스는 전례상으로는 미사(레퀴엠 포함)의 ‘상크투스(Sanctus)’의 후반부에 나오는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음악가들은 우리가 흔히 ‘거룩하시다.’로 시작하는 찬미의 노래 ‘상크투스’의 한 부분이 아니라 완전 독립시키거나, 크게(ff 또는 f)로 시작하는 상크투스의 적어도 제2부로 차분한 아다지오로 구별하여 그 독립성을 보장하였다. 한참 전에 소개하였던 베토벤의 장

Brahms: Piano Concerto No. 1 in D minor, Op. 15
 Krystian Zimerman (piano)
 Berliner Philharmoniker, Simon Rattle

Release Date: 4th Oct 2005
 Recorded: 7th Sep 2003
 Recording Venue: Scoring Stage, Berlin
 Catalogue No: 4775413
 Label: DG
 Length: 51 minutes



Brahms - Piano Concertos
 Nelson Freire (piano)
 Gewandhausorchester, Riccardo Chailly

Release Date: 12th Jun 2006
 Catalogue No: 4757637
 Label: Decca
 Length: 94 minutes

Building a Library-First Choice November 2013
 Gramophone Awards-Recording of the Year 2007



엄미사 D장조 Op.123에서 솔로 바이올린이 마치 육신의 흐느끼듯 아름다운 선율을 노래한 부분이 ‘상크투스’의 제2부 ‘베네딕투스’(전주곡)였다. 모든 악기가, 모든 목소리가 숨죽이듯 멈추고 솔로 바이올린 주자는 홀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이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세속의 악기로 취급받았던 바이올린이 성스러운 베네딕투스 기도문조차 넘어서는 천상의 선율을 가사에 앞서 미리 노래한다. 브람스는 이전에 이미 작곡하였던 성악곡 ‘베네딕투스’를 온전히 그대로 제2악장의 첫 다섯 마디에 피아노곡으로 옮겨 적고, 악보에 베네딕투스의 가사를 부제로 붙여놓았다. 이 다섯 마디의 성악 선율은 시작일 뿐이었다. 브람스는 제2악장 전부를 피아노만의 ‘베네딕투스’로 만들었다. 제2악장은 3부 형식(A-B-A')이다. 제1부(A)에서 피아노는 첫 다섯 마디의 베네딕투스 성악 선율에 이어 르네상스 스타일의 대위법을 사용하여 계

속하여 우리를 ‘개인적·주관적 명상’으로 이끈다. 제2부(B)로 넘어가는 경과부는 미묘한 순례자의 노래로 들리고, 제2부는 오케스트라와 피아노가 대화하듯이 순례의 길을 간다. 제3부(A')는 다시 첼로를 시작으로 베네딕투스 선율로 돌아오고, 그를 피아노가 따라간다. 브람스 스스로 ‘베네딕투스’라는 부제를 기보한 만큼, 3부 형식을 더 ‘영적’으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6부로 분석하는 음악학자도 있다: (1부) 명상적: ‘베네딕투스’ 주제와 종교적 배경음 (2부) 천상의 음악: 하늘의 금고에서 별을 따는 피아노 (3부) 좌절: 동요하여 우물에 빠지는 과정 (4) 목적적: 힘차게 영감을 찾아서 (5부) 천상의 음악 (6부) 명상적 ‘베네딕투스’.

제1부 ‘명상적’에는 ‘베네딕투스’를 받쳐주는 ‘종교적 배경음’이라는 명칭이 나온다. 브람스는 평소 르네상스 합창음악을 깊이 연

구하였기에 화성이 아니라 중세 교회음악의 ‘선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낭만시대 작곡가로서는 극히 예외적으로 중세 르네상스나 바로크의 푸가나 파사칼리아 기법에 심취했으며 오르간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다. 참고로 브람스는 르네상스 이후 고전에 이르는 음악사를 누구보다 꼼꼼히 공부했고, 실제로 모차르트의 모테트 ‘오라 인간들이여 (venite populi)’(K.260)를 직접 편집까지 해서 출판되는 것을 도왔으며, 독일작곡가로서는 희귀하게 스카를라티의 작품도 깊이 연구하였다. 이렇게 중세 르네상스의 합창음악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베네딕투스’가 흐르는 것이다. 이러한 제2악장을 직접 연주하였던 클라라도 역시 ‘교회음악 같다’고 표현하였다. 브람스가 이후에도 평생 ‘교회선법’에 얼마나 경도되었는지 **교향곡 제4번 E단조 Op.98** 제2악장은 화성 대신에 직접 ‘프리지아 선법’을 사용하였다. 브람스는 클라라에

게 쓴 편지에서 “이 아다지오 악장은 바로 당신의 초상화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음악가들이 미사 전례의 ‘상크투스’(‘감사의 찬가’)에서 유독 ‘베네딕투스’를 느낀 아다지오로 독립시킨 이유가 바로 브람스의 개인적 고백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브람스는 세속적 사랑을 승화시킨 ‘종교적 위안’으로 자신도 클라라도 위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음악가들은 알았을 것이다. ‘감사의 찬가’는 예수님 생전에 신자들 사이에서도 천대받던 막달라 마리아가 비싼 향유로 주님의 발을 눈물과 함께 닦아드리며 드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큰 소리(ff)로 ‘성스럽다(Sanctus)’고 외치는 끝에는 감사의 아다지오가 눈물과 함께 와야 한다는 것을! 요한 세바스찬 바흐(Johan Sebastian Bach)의 ‘마태 수난곡(BWV. 244)’의 제10곡 알토 아리아나 ‘미사 B단조(BWV. 232)’의 ‘베네딕투스’에서도 감사의 눈물이 보인다. 바흐의 미사 B단조 제

24곡 ‘베네딕투스’를 플루트와의 이중주를 이루는 테너의 단아한 음성으로 듣다보면, 후반부(‘in nomine Domini’)에 이르러 그 선율(레시라#시 미레도시 파#시도#라시)은 얼마나 황홀한지... 베토벤과 브람스 모두 바흐의 음악을 그토록 존경하고 깊이 연구 하였던 이유를 저절로 알게 된다. 언어의 끝 은 침묵(눈물)이라고 하던가. 바흐의 ‘베네딕 투스’의 목소리는 이렇게 베토벤의 솔로 바 이올린과 브람스의 피아노로 승화되었다. 과 연 독일의 3B(Bach, Beethoven, Brahms) 라고 할 만하다.

브람스는 결론에 해당하는 제3악장을 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그 해결책을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3번 C단조 Op.37의 제3악장에서 찾았다. 자신을 베토벤의 후계 자라고 한 스승 슈만을 기억한 것일까. 그래서 두 곡은 론도(A-B-C-A)로 구조가 거의 같다. 제3악장의 첫 시작은 피아노가 하는데, 이 론도주제(A)는 바흐에게서 영감을 받은 빠른 멜로디를 다소 격정적으로 연주하고 바로 오케스트라가 응답한다. 다시 피아노가 ‘포효’하고, 그것을 오케스트라가 받는다. 숨길 수 없는 격정이다. 이어지는 첫 에피소드 (B)는 더 반항적인데, 다음 에피소드(C)에서

는 가라앉고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듯 전원적으로 된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면 피 아노의 ‘카덴짜(Cadenza)’에서는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저 강력한 브람스의 열정’을 보여 주는데.. 온몸에 전율이 오고 피가 거꾸로 치솟는 기분으로 숨 가쁘게 절정으로 치달 려 간다. ‘코다’에 이르러 다시 돌아온 론도 주제(A)는 ‘희망적인 D장조’로 바뀌고, 젊음 의 초상과도 같이 두들겨대는 피아노에 이 어 터지는 오케스트라의 총주는 용암과 같 이 분출한다. 청년 브람스의 좌절과 고독은 이렇게 희망 속에서 녹아있었다. 아, 청춘은 아름다워라! 🍷

Cornerstone



Christ Crucified, representing the death of Jesus on the Cross, painting by Diego Velázquez (1632)

십자가 (라틴어: crux, 영어: cross)

가로와 세로의 십자(十) 모양으로 교차되는 2개의 나무로 이루어진 것으로 십자가는 원래 이집트, 카르타고 등의 고대 동방(東方)에서 죄인의 양 팔과 발에 못을 박고 매달아 처형하던 도구였으나 이 형벌이 로마제국에 유입된 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자 그 후로는 십자가는 인류의 속죄를 위한 희생 제단, 죽음과 지옥에 대한 승리, 그리스도를 신앙함으로써 당해야 하는 고통 등을 상징하게 되었다. 그러나 십자표시(十)는 그리스도교 이전의 원시 종교들에서부터 태양, 별, 생명의 나무, 종함, 중심, 완전 등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의 상징이었다. 신학적으로 십자가는 계시(啓示)의 신비로 파악되며, 예수 자신도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마태 16,24)고 말하며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십자가의 신비를 깨우치도록 가르쳤고, 또한 사도 바오로도 그의 서한들(로마 5,8, 고전 1,17, 갈라 4,16, 필립 2,6-11) 속에서 십자가의 신비를 주요한 테마로 다루었다.

십자가에 대한 공경은 4세기초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뒤부터 시작되었는데, 성녀 헬레나(Helena)에게 십자가가 발견하고, 이어 320년에서 345년 사이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예수가 2명의 도둑과 함께 못 박혔던 2개의 십자가가 발견되어 이를 안치할 십자가성당과 부활성당이 예루살렘에 건축되었고, 335년 9월 14일이 양 성당의 헌당식 축일로 제정되자 십자가는 그리스도교의 공경 대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고, 그레고리오 대교황 때엔 로마교회에도 전해졌다. 그 뒤 692년 트룰라눔(Trullanum) 교회회의를 통해 십자가 공경은 강화되었고, 787년 제2차 니체아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십자가의 모양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먼저 동방과 그리스도교 고대 미술에 존재했던 균형 십자가, 소아시아의 원형십자가, 이집트의 콥트교회에서 사용하던 십자가(♀), 그리스십자가(+), 라틴십자가(t), 안토니우스십자가(T), 베드로 십자가, 안드레아십자가(X), Y형십자가, 켈트십자가 등과 이밖에 많은 복합적인 십자가 등이 있었고 또 많은 왕족, 귀족, 교황들의 문장(紋章)으로 사용된 십자가들과 15-16세기에 나타난 교황십자가, 대주교십자가 등이 있었다. [출처: 가톨릭대사전]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갈릴래아 호숫가에서의 하루 - 갈릴래아 호변

심연선 소화테레사,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이스라엘 순례 또는 관광을 하면서 ‘참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곳이다’로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갈릴래아는 예수님이 3년동안 공생활을 하신 장소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이스라엘에 오신 분들이 마음을 여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해 드렸는데요, 그만큼 이스라엘 여행에서 압도적으로 감동을 느끼는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갈릴래아 호수는 둘레 55km, 해저 215m에 있는 담수호입니다. 동서남북 갈릴래아 호숫가를 따라 숙소가 올망졸망 모여 있는데,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서쪽 티베리아스 지역입니다. 고층 또는 고가의 호텔들은 다 이곳에 있습니다. 또한 저가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도 이곳 티베리아스에 있습니다. 남쪽과 동쪽은 키부츠에서 운영하는 리조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왕인거 이스라엘에 오시면 편안한 휴식도 좋지만 갈릴래아의 예수님에게 흠뻑 빠져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기에

는 일반 호텔이나 리조트보다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순례자의 집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네 군데의 순례자 숙소를 말씀을 들려볼까 합니다.

순례자 숙소는 ‘성지에’ 또는 ‘성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지를 지키는 수도자들이 머무는 곳 주변에 피정의 집 형태로 지어진 것이 일반적인데, 요즘은 많이 진화(?)하여 4성 호텔급의 편의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 베네딕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Tabgha Pilgerhaus/필거하우스’입니다. 이 숙소는 빵과 물고기를 많이 하신 기적을 기념하는 성당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외딴 곳’에 가서서 늘 기도하셨다고 복음서에서 많이 보았는데, 이곳이 그런 느낌입니다. 갈릴래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돌인 검은색 현무암으로 외벽을 꾸며서 독특하고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냅니다. 작은 경당이 있는데 이곳에 모여

아침기도를 바치고 하루를 시작하고 일과가 마무리되는 저녁에 모여 저녁기도를 바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창 너머로 아련하게 보이는 갈릴래아 호수는 깊은 묵상으로 나를 초대합니다. 아침식사는 독일식으로, 이스라엘에서 아침식사에 볼 수 없는 소세지가 나옵니다. (유대교 음식정결례법에 따르면 유제품과 육류를 함께 조리, 섭취할 수 없습니다) 저녁에는 갈릴래아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쐬며 시원한 맥주 한잔, 또는 따뜻한 차 한잔할 수 있는 테라스 바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동녘에서 떠오르는 햇살을 맞이하며 숙소 앞에 있는 산책로를 따라 예수님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두 번째는 프란치스칸 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Beatitude Monastery Guest house/참행복선언 성당 순례자 숙소’입니다. 참행복선언 성당이 있는 성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구관과 신관이 있는데 구관은 시설은 좀 낙후되었지만, 참행





갈릴래아 호수

복선언 성당을 지은 바롤루치가 지은 것이라니 의미가 있는 잠자리입니다. 이곳은 성지 바로 옆이다 보니 많은 순례자들이 오가는 성지개방 시간에는 어수선했 수 있습니다만, 성지순례 시간이 마감된 후에는 성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이곳은 갈릴래아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있어서 빼어난 경치를 마음껏 누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해가 떠오르는 시간에 이곳에서 골란고원 너머 올라오는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의 찬가가 저절로 나옵니다. 프란치스칸 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유난히 이곳은 자연 친화적입니다. 베네딕도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숙소처럼 이곳도 외딴

곳에 떨어져있어서 차가 오가는 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습니다. 밤에는 대부분의 불이 다 꺼지는데, 발걸음을 조심하며 뜰에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탈리아 프란치스칸 수녀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오가시며 활짝 웃는 얼굴로 맞이해주시는데 우리 고모, 할머니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세번째로는 레지오날레 크리스티에서 운영하고 있는 'Magdala/막달라'입니다. 위의 세 숙소 중에 가장 최근에 지어진 곳인데, 예루살렘의 노트르담 센터를 운영하는 수도회의 갈릴래아 지점입니다. 이곳 또한 성지



미그달 성당 제대



미그달 성당 그림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고향인 미그달('탑'이라는 뜻) 마을의 유적지 바로 옆에 지어진 숙소입니다. 숙소 공사를 하다가 회당을 비롯한 예수님 시대 마을 유적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니 참 놀랍습니다. 수도회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지었는데, 시설이 매우 좋은 호텔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숙소는 외딴 곳에 있는 느낌인데, 이곳은 그에 비하면 조금 개방되고 현재의 미그달 마을과 가까이 있어 동떨어진 기분은 들지 않는 편입니다. 갈릴래아 호변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duc in altum/깊은 물로 가서'라는 이름의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을 들어서면 천장에는 과달루페 성모님의 손이 그려져 있고 좌우

의 경당들에는 예수님이 갈릴래아에서 보여 주신 기적들이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1층 성당 제대는 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대 뒤 창문으로 갈릴래아 호수가 잘 보입니다. 제대 바닥은 갈릴래아 호수의 색과 같은 청록색의 타일로 깔려 있어 제대가 물 위에 떠 있는 배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곳에서 신부님이 미사집전을 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깊게 다가옵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미그달 마을에서 발견된 회당을 복원시켜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보자마자 '아! 하혈하는 여인(마르 5,25)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장면이다.'라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가



참행복선언성당숙소



티베리아스의 베드로성당



필거하우스



필거하우스 경당

만히 보면 그 여인은 예수님 발 근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의도는 무엇일지 모르나, 아마도 그 여인은 바닷에 엎드려 기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은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감동을 얻고 가십니다. 그 여인의 절절한 마음이 그림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유적지 입구에서 크기 별로 꽤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적지 발굴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그런가봅니다.

마지막으로 프란치스코회에서 운영하고 있

는 ‘Casa Nova Tiberias/카사노바’입니다. 이름 그대로 티베리아스에 위치한 숙소입니다. 십자군 시대 때 베드로 사도를 기념하여 지은 성당 바로 옆에 지은 순례자 숙소입니다. 성지 이스라엘에 있는 ‘Casa Nova’는 거의 대부분이 프란치스코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숙소인데, 가장 오래되었고 성지에 가장 가까이 있어 알려져 있습니다. 카사노바의 뜻이 새 집인데, 다른 곳에 비해 오래된 숙소여서 왠지 재밌게 느껴집니다.

또 다른 한곳을 더 소개해 드리자면 가파르나훔 북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Domus Galilaeae’입니다. 네오쿠떼까메나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2000년 대회년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방문하신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이곳 준공식에 방문하시어 ‘종교간 대화의 장’을 희망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무슬림, 유대인, 드루즈인 등 다양한 종교인들이 어우러져 일하고 있습니다. 건물 바깥에 있는, 갈릴래아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배경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열두 사도들 성상은 ‘내가 바로 그 곳에 있구나!’하는 현장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내부에 있는 성당 이콘도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일반 순례자들에게는 숙소가 개방되어있지 않으나 세미나실과 도서관 등 내부 설명을 요청하면 친절히 안내해줍니다.

갈릴래아 호수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아주 빼어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닌데 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곳에서 그렇게 행복을 느끼고 갈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실 때 주로 이곳에 머무르시며 많은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때로는 눈물 지으며 지내셨던 그 곳!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치유의 땅이기도 하지만 그저 사랑하을 주님이 머물러 계셨다는 그 한마디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신비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4)

“네 기쁨의 눈물로 땅을 적시고 네 그 눈물을 사랑하라.”

최대한 신부·의정부 교구 / 대신학교

1.대심문관의 전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있어 극적구조에서나 신학적 차원에서나 중심에 해당하는 내용은 1부 5편 「pro와 contra」, 2부 1편 「러시아의 수도사」, 2부 2편 「알료샤」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1부 5편에 나오는 이반 카라마조프의 <대심문관> 전설은 다양한 해석을 받고 있는데, 2부에 이어지는 알료샤의 스승이자 많은 이들 존경을 받는 수도승인 조시마 장로의 고백과 가르침, 그리고 그가 죽은 후 알료샤가 겪는 혼란과 깨달음의 이야기와 함께 살펴볼 때 작가의 의도에 보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5편의 소제목인 “pro와 contra”는 어떤 주제를 두고 이루어지는 논박이라는 원뜻을 가진 말입니다. 지난 호에 살펴본 알료샤와 이반이 아이들의 고통이라는 주제를 놓고 나눈 대화가 앞부분이라 할 수 있고, 이어서 나오는 5장 <대심문관>은 5편의 절정에 해당됩니다. 이반은 알료샤에게 자신이 창작한 시적 이야

기인 ‘대심문관의 전설’을 들려주며, 신의 나라에서 온 ‘초대장’을 거절한다는 자신의 신학적이며 실천적인 주장을 심화합니다. 이에 대해 알료샤의 응답이 이어지고, 다시금 마지막으로 이반이 자신의 내심을 내비치는 장면과 함께 5장이 마무리 됩니다. 5편 안에서 전개되는 이후의 내용은 5장이 다룬 신학과 사상의 차원과는 좀 다릅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는 높은 차원의 종교적, 신학적 논쟁이 전개되는가 하면, 동시에 애증과 욕망과 폭력이 난무하는 통속소설적인 사건이 폭풍우처럼 일어납니다. 5편에서도 이반과 알료샤의 대화가 끝난 후 다시금 소설의 외적인 축이 되는 표드르 카라마조프 살해사건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 등장인물들의 행위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의 알료샤와 이반의 치열한 대화가 소설의 정신적 백미를 이룬다면, 바로 이어진 6장에 나오는 이반과 실제로 표드르를 살해하는 인물인 스메르자코프 사이의 긴장감에 차있는 대화는 정념과 행위의 차원에 있어 변곡점이 됩니다. 여기

서 이반이 암묵적으로 스메르자코프가 부친을 살해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는 사실이, 드미트리의 재판과 유죄판결, 스메르자코프의 자살, 이반의 섬망이라는 파국에 이르는 3부의 사건전개에 있어 결정적인 복선이 됩니다.

<대심문관>의 내용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중세말기 종교재판으로 ‘매일 화형대가 불타오르던’ 스페인의 세비야가 무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금방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복음에서처럼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고 온유와 자비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릅니다. 이를 차갑게 바라보던 종교재판소의 대심문관인 추기경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밤이 되자 아흔에 가깝고 바짝 말랐지만 여전히 불타는 듯 형형한 눈빛을 가진 노인인 추기경은 홀로 등불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반은 자신이 창작한, 대심문관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첫 번째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당신이요? 당신?” 하지만 대답을 듣지 못하는 노인은 얼른 덧붙이지. ‘대답하지 말고 입을 다무시오. 더구나 당신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소?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아주 잘 알고 있소.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이미 예

전에 한 말에 아무것도 덧붙일 권리가 업소. 어쩌서 우리를 방해하러 온 거요? 당신은 우리를 방해하러 왔고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소. 하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나 하오?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소. 다만 나는 내일 판결을 내려 당신을 이단 중의 가장 극악한 이단으로 화형에 처할 거요. 오늘 당신 발에 입맞추던 이들이 내일이며 내 손짓 하나에 당신의 화형대에 장작을 쌓으려 달려들겠지. 그걸 아오? 그래 당신도 알지 모르지.’ 그는 한순간도 자신의 포로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골똘히 생각에 빠져 이렇게 덧붙이지.”(『카라마조프 형제들』1, 홍대화 옮김, 창작과 비평사, 2021, 463쪽)

이반은 이어서 대심문관이 예수님을 심문하는, 혹은 그에게 항의와 비난을 하는 내용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은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유혹한 ‘무섭고도 영리한 영, 자살과 허무의 영’인 악마의 세 가지 제안입니다. 대심문관은 인간의 자유에 신뢰를 두고 악마의 유혹적 제안을 거절한 예수님의 모습이 결국은 전체 인류에게 재앙이 되었다고 항변합니다. 인간은 자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안녕을 추구하고, 기만을 통해서라도 자기 양심의 편안함을 원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자신과 같은 신을 거부한 고통에 영원히 시달리는 소수의 ‘희생’을 통해 수많은 약한 신앙과 정신을 가진 이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며, 이를 방해한다면 예수님마저 제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반이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여러 번 말을 끊으려하다 자제하던 알료샤는 이야기의 끝에 열정적으로 이반과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결론을 말합니다.

“단 한가지, 무신만이 그들 비밀의 전부일 뿐이죠. 형의 대심문관은 하느님을 믿지 않아요. 그게 바로 그의 비밀이에요!”(『카리마조프 형제들』1, 홍대화 옮김, 창작과 비평사, 2021, 484쪽)

이반은 알료샤에게 비록 대심문관이 믿음을 갖지 않은 인물이지만, 세상의 평화와 안녕을 바라며, 이를 위해 기꺼이 버거운 자유를 반납할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행복을 위해 종교와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진지하게 깨달은 인물이라고 변호합니다. 그러나 또 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맺으면서 이러한 유형의 인물이 궁극적으로 대면하게 되는 고뇌와 비극을 암시합니다.

“나는 이 서사시를 이렇게 끝맺고 싶었다. 대

심문관은 입을 다물고 그의 포로가 어떤 대답을 할지 잠시 기다려. 그의 침묵이 괴로웠던 거지. 그는 포로가 내내 꾀뚝을 뜻이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무런 반박도 하려 들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을 보았어. 노인은 그가 무슨 말이든, 설사 쓰라리고 무서운 말이라도 해주기를 바랐어. 하지만 그는 돌연 말없이 노인에게 다가와 아흔살의 핏기 없는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추지. 그게 대답의 전부야. 노인은 몸을 부르르 떨어. 그의 입술 끝이 움찔거리는 듯 하지. 그는 감방 문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그에게 말해. ‘나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절대로 오지 마시오…… 절대로, 절대로!’ 노인은 그를 ‘도시의 어두운 광장’으로 내보내. 포로는 사라지지.”

“노인은요?”
“입맞춤이 그의 심장에서 불타오르지만, 노인의 예전 사상을 그대로 간직해.”(『카리마조프 형제들』1, 홍대화 옮김, 창작과 비평사, 2021, 486-487쪽)

알료샤는 이반이 대심문관의 입을 통해 주장하는 무신론이 사실은 허무주의와 절망에 닿아 있음을 감지합니다. 그러기에 이반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씩트는 이파리, 소중한 무덤, 푸른 하늘, 사랑하는 여인은요! 형은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무엇으로 그들을 사랑할 건데요? (...) 가슴과 머리에 그런 지옥을 품다니 가능하거나 한 일이에요? 아니야, 형은 그들과 합류하기 위해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죽일 거예요. 견디지 못할 거라고요!”(『카리마조프 형제들』1, 홍대화 옮김, 창작과 비평사, 2021, 487쪽)

그러나 결국 이반은 알료샤에게 이제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후 뒤돌아서서 갑니다. 알료샤는 이반과의 만남 이전에 그 전날 드미트리와 만났고, 역시 그가 불안과 흥분에 사로잡혀 가는 뒷모습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애달프고 슬프고 비탄에 잠긴 알료샤에게 뒤돌아 멀어져가는 두 형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스쳐갔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냉소와 회의의 지성을 상징하는 이반이나 절제와 조화로운 삶을 모르는 무모하고 타락한 열정을 상징하는 드미트리, 두 사람 모두 이제 은총을 상징하는 알료샤에게서 멀어져가고 있으며, 이는 이반이 말했듯, ‘카라마조프적 저열함’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비참함이라 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두 사람을 어둠으로 이끄는 힘은 자기혐오의 감정이라 하겠는데, 이는

은총에 대해 등을 돌리고 달아나는 인간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긴장은 최고조로 차오르고 독자들은 파국은 피할 수 없다는 것에 전율을 느낍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과연 파국을 맞이한 인간에게 여전히 구원의 가능성은 남아있는가? 그리고 이는 이 대작의 궁극적 주제입니다.

2.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중 1부 5편에서 이반이 알료샤와의 논쟁과 ‘대심문관의 전설’에서 웅변하는 ‘무신론’은 일찍부터 이 작품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해석의 대상이 된 대목이었습니다. 여러 주요한 해석의 방향들이 있습니다. 만년의 도스토예프스키가 그의 『작가의 일기』에서 정치적, 문화적 맥락과 관련하여 취하고 있는 강고한 반서방적, 반가톨릭적 입장에서 유추하여 정교회 정치신학을 옹호하는 글로 보는 관점, 그가 이미 대작 『백치』의 주인공 므슈킨 공작을 통해 형상화하고자 시도했던 회의와 비판의 지성주의에 대립하는 순수한 신앙에 의존하는 신비주의적인 그리스도론상의 표현으로 보는 비평, 현대 실존주의 철학의 자유 이해를 선취한 전망으로 높이 평가하는 철학사적 접근, 혁명 전야의 러시아에서 파시스트와 공산주의 같은 전체주의 사회질서의 도

래를 예감한 예언자적 경고, 나아가 기술중심적, 환원주의적 세계관에 의해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오늘날의 상황을 비추어볼 수 있는 시대를 앞선 ‘디스토피아’적 세계 등, 각기 나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다양한 외적인 맥락과 시대정신에 따른 해석에 앞서서 작품의 내적인 구조에 있어 이 부분이 차지하는 위치를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대목에서 오랫동안 제기된 질문의 중요한 요점은, 이반이 제기하는 신에 대한 고발 혹은 신을 거절하고자하는 논거에 대해 알료샤가 설득력 있는 답을 주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도스토예프스키는 ‘실천적’으로 신을 거부하고자 하는 이들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도 힘 있고 반박하기 어렵게 묘사하는 작품을 완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을 옹호하고자 할 때, 단지 사변적인 무신론과 대결할 때가 아니라, 지적이면서도 실천적이고 현실에 뿌리를 둔 가장 뼈아프게 다가오는 무신론에 응답할 때 진정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자신이 창조한 ‘대심문관’에 대해 작가가 사상가로서 이러한 의미에서 자부심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알료샤는 이반을 설득시키

지 못했고, 이는 많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당대의 독자들에게는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때로는 도스토예프스키 자신이 이반이 처한 ‘회의’의 단계에 내심 경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반의 내면의 상태입니다. 독자는 이반이 삶의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영혼과 육신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암시를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이는 이반이 알료샤에게 전율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은 염려와 연민을 자아내는 인물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무신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삶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상이며 태도이자, 동시에 삶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법을 잊었을 때 도달하게 되는 귀결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도스토예프스키가 지하 혁명 운동에 관여했던 젊은 시절에 사형대에서는 극한 체험을 하고, 시베리아 유형 의 비참한 시기를 거치면서 각고의 노력으로 도달한 인식이기도 했습니다. 허무주의와 자기 파괴의 유혹과 싸우는 것은 당시 그가 느끼고 있던 시대의 가장 절박한 과제였고, 동시에 허무주의는 그에게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명제로 요약되는 무신론과 폭력의 가공할 만남이 생겨하는 근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위기를 그는 『악령』에서 전무

후무한 방식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러한 파국에서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모색합니다. 구원의 길은 결코 ‘유클리드적’ 지성의 논증을 통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삶과 실천이 함께한 사상만이, 고통과 겸손과 회개를 아는 정신만이, 용서와 사랑을 체험했고, 그리로 투신하고자 하는 이들만이 알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러한 답을 듣고자 한다면, 독자는 이어지는 조시마 장로의 마지막 유언에 담긴 자신의 회심의 여정과 남은 이들을 위한 가르침, 그가 죽고 나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유해에서 심한 부패의 악취가 나게 되었을 때 수도원과 마을에 퍼진 동요, 그리고 스승의 죽음과 그 여파가 주는 일련의 상황에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알료샤의 내면으로 이어지는 2부 1편과 2편의 이야기 안에 들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성서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에 이른 알료샤의 모습을 만납니다.

“지상의 고요는 천상의 고요와 하나로 섞이는 듯했고, 지상의 신비는 별들의 신비와 맞닿아 있었다…… 알료샤는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다리가 꺾인 사람처럼 땅에 무릎 꿇고 쓰러졌다. 그는 자신이 어째서 땅을 안았는지, 어째서

견딜 수 없이 땅에 입맞추고 싶었는지, 땅 전체에 입을 맞추고 싶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울먹이다 통곡하며 눈물을 적시고 입을 맞추면서 그 땅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기로 미친 듯이 맹세했다. ‘네 기쁨의 눈물로 땅을 적시고 네 그 눈물을 사랑하라……’ 이런 소리가 그의 영혼에 울려 퍼졌다. 그는 무엇을 위해 울었던 것일까? 오, 그는 심연으로부터 그에게 빛나며 ‘광기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별들로 인해 환희에 젖어 눈물을 터뜨렸다. 이 모든 무한한 하느님의 세계가 그의 영혼에서 실타레처럼 뭉쳤고, 그의 영혼은 ‘다른 세계와 접촉하며’ 온통 떨려왔다.

그는 모든 이를 용서하고 싶었고, 모든 것에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다른 이들도 나로 인해 나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는 말이 그의 영혼에 다시 울려 퍼졌다.”(『카라마조프 형제들』2, 홍대화 옮김, 창작과 비평사, 2021, 152-153쪽)

이제 마지막 회에서는 위의 본문에 나오는 알료샤의 체험이 전해주는 위대한 사상이자 삶에 뿌리내린 사상이며 도스토예프스키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하는 진리인 ‘모든 이는 모든 이에게 죄인이다’라는 영적 깨달음의 의미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자 합니다. 🍎

진료실에서 바라보는 세상이야기

서부전선 과연 이상없나?

이형중 프란치스코_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교수

진짜 총알이 발사되는 광경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고 듣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육군의 무중대장으로 3년 지낸 경험이 군생활의 전부였지만, 사격훈련장에서 들렸던 실탄 소리와 수류탄, 크레모아 터지던 굉음은 휘뿌연 연기, 삽시간에 눈앞에 펼쳐지는 텅비어버린 공간들과 함께 작동하여 주위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던 정서적 충격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사격훈련이 이 정도니까 실제 전장에서 겪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테러는 얼마나 횡폭할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1998> 첫 장면. 노르망디 상륙을 위해 오마하 해변에 내던져진 미군들은 물안개 너머 독일군 진지에서 쏟아지기 시작하는 기관총 세례에 몸을 숨길수도 없어 무기력함에 망연자실해진다. 역설적으로 고탈해진 세상은 지옥을 지키는 사냥개 케르베르스의 울음처럼 특정 주파수에만 감지되는, 전쟁터에서나 있을법한 진짜 총소리로 들어차 버린다. 물속으로 피신하여 귀가 멍멍해

진 사람들에게도 총알은 피식거리며 날아들어 파란색 바닷물은 금방 붉어진다. 연이은 기관총 소리와 폭발음으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채 보는 듣고 만지는 모든 것들에서 현실감이 사라진 전직 문학교사 밀러 대위는 방금 전까지 대화를 나누었던 옆에 있는 동료의 몸을 돌리지만 순식간에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그의 얼굴에 공황상태에 빠진다. 최대한 현실감을 부여하기 위해 영화적 시간은 실제 전투 시간과 거의 비슷한 27분간 실재없이 관객을 괴롭힌다. 참전한 4형제 중 3형제가 죽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라이언 일병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생환시키라는 대통령의 명령은 군인들에게는 프로파간다를 넘어선 절대적인 행위규범(code of conduct)이 되어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게 된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전쟁은 그 해 겨울을 넘기고는 현재의 휴전선을 중심으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거듭하게 된다. 1.4 후퇴 이후로 시작된 휴전협정으로 최전선의 군인들

은 조금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인근 30-40km를 점령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 고지탈환에 몰두하게 된다. 하루에도 서너번씩 주인이 바뀐 B고지에서 보여지듯 실질적인 대량 전사상자는 이 시기에 발생하였다. 1953년 7월 27일 발효된 휴전협정은 협정 조인 12시간 이후 확인되는 영토를 기준으로 최종적인 군사분계선을 같음한다는 이상한 단서조항 때문에 휴전으로 한껏 들떠던 군인들은 최후가 왔음을 직감한다. <고지전, 2011>은 전쟁영화가 아닌 땅따먹기에 내몰린 군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전쟁영화이다. 고지를 탈환하라는 군수뇌부의 명령 한 마디에 일개 군인들은 팔다리가 잘리면서, 아군 비행기의 폭격에 죽어가면서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자라지 못하게 된 말 그대로의 허허벌판 고지에 나뒹굴게 된다.

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러시아가 시작한 우크라이나 침공은 21세기에 예상되던 것과과는 많이 달랐다. 그간 외신보도와 영화에서 접했던 다양한 국지전 양상은 살인로봇, A.I., 드론, 고성능 미사일 등으로 인해 사람이 보이지 않고, 전장이 따로 없을 것이란 그런 것들 말이다. 여전히 재래식 무기가 사용되고 죄없는 민간인이 희생되는 시가전이면서, 오히려 20세기 초 지탄을 받았던 자기만족감을



라이언 일병 구하기
Saving Private Ryan, 1998
전쟁, 액션, 드라마 | 미국 | 170분



고지전
高地戰, The Front Line, 2011
전쟁, 드라마 | 한국 | 133분

채우기 위해 명분없이 전쟁을 일으켰던 어느 전쟁광이 오버랩되는 기시감이 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다다른 1944년 8월 초 파리를 수복한 연합군은 고양된 자신감으로 그해 크리스마스 전에 종전을 시키겠다는 신념으로 무모한 작전을 감행한다. 그 배후에는 미국의 아이젠하워와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의 반목과 공명심도 있었고, 정황에 대한 설부른 판단과 독선, 그리고 무엇보다 독일군에 대한 과소평가가 있었다. 마켓 - 가든 작전은 베를린으로 향하는 육로인 네덜란드 - 벨기에의 주요교량을 확보하자는 대규모 군사작전이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던 독일군에게는 필사항전의 계기를 만들었지만 정세를 오판한 미영 연합군 수만명에게는 지옥으로 향하는 입구가 된 셈이다. <머나 먼 다리, 1977>는 총 길이 100km에 달하는 좁은 도로를 중화기의 도움없이 7개의 다리를 건너야 했던 위험천만의 무모한 전투에 대한 자아반성이다. 독일군의 MG42 기관총세례를 받으며 수많은 희생자를 뒤로 하고 아른헴 도강을 시도한 미군 공수부대원들에게는 너무도 먼 다리였을 것이다.

대학생이던 폴은 제1차 세계대전에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교수의 연설에 감동

받고 친구 3명과 자원입대하지만 그를 제외한 3명은 모두 전사하게 된다. 부상을 당하여 고향으로 내려온 그는 전쟁을 낭만적으로 이야기하는 주변사람들에게 낙담하고 교수가 후배들에게 입대를 독려해달라고 부탁하자 결국은 총알받이가 되어 개죽음을 당할 뿐이라고 일갈한다. 다시 전장으로 복귀한 폴이 참호에서 날아오던 나비를 향해 손을 뻗던 중 상대방이 쏜 총탄에 의해 털썩 주저앉던 날, 사령부는 <서부전선 이상없음, 1930>이라는 공식발표를 한다. 미시적으로는 개개인의 목숨이 절멸되지만 전쟁이라는 거시적 관점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 한 전장에서의 인도주의는 소원하기만 하다.

100m도 되지 않은 거리를 두고 지리한 공방을 펼치던 독일, 프랑스, 영국군이 진주하던 제1차 세계대전의 어느 참호 속. 성탄절야에 영국은 백파이프 연주로 긴장을 해소하려 하고, 독일군은 노래로 화답한다. 실화를 배경으로 한 <메리 크리스마스, 2005>에서 3국의 군인들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일시휴전에 들어가기로 합의한다. 전우의 사체를 수습하고 서로 초콜릿, 비스킷과 와인, 담배를 교환하며 고향 이야기를 하는 도중 그들은 새삼 느끼게 된다. 서로 총부리를 겨누던 참호속 적군 역시 나와 다르지 않은 생각, 느낌, 가족

을 가진 일개 젊은이였다는 것을. 휴전은 끝났지만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총질을 할 수 없게 된다.

삶은 전쟁이라고 한다. 상대방을 이겨야 내가 살고, 그러려면 약점을 잡고 혈투어야 한다. 사람이 금수와 다른 점은 도리를 알고, 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 도처에서 품위를 잊고 야귀처럼 물고 뜯는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며 스스로 폄하하면서.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처럼 찢절매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포화가 빗발치던 우크라이나의 지하실에서 낭랑한 목소리로 부르던 어린 소녀의 “Let it go”에서, 그리고 폴란드의 위로무대에서 복장을 달리하여 우크라이나 국가를 부르던 같은 소녀의 수줍으나 상기된 표정에서 희망을 읽어보련다.

“Hoc quoque transibit.” (이 또한 지나가리라.) ●



머나 먼 다리
A Bridge Too Far, 1977
액션, 드라마, 전쟁 | 미국, 영국 | 176분



서부전선 이상없다
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 1930
드라마, 전쟁 | 미국 | 131분



메리 크리스마스
Joyeux Noel, Merry Christmas, 2005
전쟁, 드라마 | 프랑스, 독일, 영국, 벨기에, 루마니아 | 115분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성 요한 세례자

윤인복 소화테레사_ 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미술학과(대학원) 교수

성 요한 세례자(Joannes Baptistae, 1세기경)는 루카복음에서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까지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이 등장하기 바로 전에 활동하던 마지막 예언자이다. 그는 마리아와 사촌지간인 엘리사벳의 아들이며, 예수님보다 여섯 달 먼저 태어났다. 요한 세례자의 존재는 신앙심이 충만한 늙은 제사장 즈카르야와 엘리사벳이 천사에게 믿을 수 없는 아들의 탄생 예고를 들으면서 드러났다. 이들이 아이를 갖기엔 너무 많은 나이였지만, 요한 세례자는 기적과 같이 출생했다. 구원의 시작을 알려주는 요르단강에서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역할을 한 그는 유다 사막에서 은수자로 살았고, 30세가 됐을 때부터 요르단강 강가에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설교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마리아(예수님)와 엘리사벳(요한 세례자)의 만남

갓 태어난 요한 세례자는 마리아의 뱃속에서 뛰어노는 아기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며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차렸기에 장차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깨달았다. 요한은 예수께서 ‘하느님의 어린양’ 이요,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소리 높여 증언한다. 앞으로 큰일을 이루실 예수님을 위해 그는 기꺼이 준비한다.

마리아와 사촌 간인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기 전, 하느님의 은총으로 아기를 갖게 된다.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다. 그렇지만, 구세주 예수보다 먼저 태어나 그분의 길을 준비할 사람이 필요했기에 엘리사벳은 그 사람을 낳을 여인으로 선택된 것이다. 엘리사벳의 붉은색 망토와 흰색 베일은 사랑과 믿음을 상징하는 색으로, 그녀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임신이 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녀는 마리아를 주님의 어



궁정학교 화가,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15세기, 패널에 유채, 마드리드 라사로 갈디아노 미술관

머니로 칭했고,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신 분으로 고백한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복부에는 금장식 된 메달 모양이 그려져 있다. 여기에는 두 여인의 자궁 안에 자라고 있는 예수님과 요한 세례자의 태아 모습이 묘사돼 있다. 이러한 도상은 그리스도의 육화를 강조한 표현으로 비잔틴 미술에서 그 기원을 가진다. 왼쪽의 아기 예수는 오른손을 들어 오른쪽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요한 세례자를 향해 축복하고 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단순히 둘만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요한 세례자의 만남으로 연결된다. 두 아기는 몇 개월 사이로 태어나 어린 시절도 함께 보내게 되고 후일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

고, 요한은 구세주 예수가 세상에 올 것을 예고하는 예언자가 된다.

광야의 요한 세례자

많은 화가가 요한 세례자의 일화를 작품으로 남겼다. 가장 일반적인 성인의 도상(圖像)은 유년기의 요한, 광야의 요한, 예수께 세례를 주는 요한 그리고 참수형을 당하는 요한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유년기의 요한은 성경의 내용과 상관없이 아기 예수의 가족과 함께 나타나거나 아기 예수와 정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면이고, 광야의 요한은 짐승의 가죽옷을 입은 모습으로 등장한다. 비둘기 형상을 한 성령의 출현과 함께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요한의 모습이거나, 요한이 참수형을 당하는 현장이나 요한의 머리가 접시 위에 놓인 요한의 죽음 장면이다.

무엇보다 광야에서 생활한 요한 세례자의 모습은 화가들에게 다양한 상상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주제였다. ‘광야의 요한 세례자’의 주제는 화가 시대에 유행과 개성에 따라 자연에 대한 미학적 이론을 토대로 실제 혹은 상상의 풍경으로 그려진다. 광야로 나간 요한 세례자는 거기서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다. 매우 비옥한 평야를 가진 요르단 부근이지만, 성경의 묘사에 따르면 그 광야는 차라리 살 수 없는 땅에 가깝다. 그러나 많은 명화(名畵)에서는 그곳을 매우 쾌적하고 낭만적인 풍경으로 묘사하곤 한다.

네덜란드 화가인 히에로니무스 보스(Hieronymus Bosch. 1450~1516년)는 풍부한 상상력으로 요한 세례자를 묘사했다. 그는 서양미술사에서 가장 신비로움에 싸인 화가로 알려졌으며, 그의 단조로운 삶에 비해 작품들은 상상력이 가득하다. 그림 속에는 신비주의와 공포, 선과 악, 영적인 긴장과 미신, 민중들의 격언, 인문주의적 요소 등이 혼합돼 있다. 보스의 작품에는 중세의 상상력이 넘치는 이야기와 인문주의적 직관이 혼재된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화가들은 일반적으로 요한 세례자를 너마 같은 짐승 가죽옷을 입고 흐트러진 머리 모양으로 표현한다. 짐승 털로 만든 옷을 걸치고 헝클어진 머리에 십자가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
<어린양과 함께 있는
아기예수와 요한 세례자>,
1670-1675년, 캔버스에 유채,
프라도 미술관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
<그리스도의 세례>,
캔버스에 유채, 1655년,
베를린 국립미술관

형의 막대기를 든 모습으로 그렸다. 보스는 광야에서 요한 세례자가 묵상에 잠겨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광야의 풍경은 보스가 창조해낸 상상의 기이한 동식물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림 오른쪽 아래에는 앙증맞은 흰 어린양이 앉아 있다. 붉은색 망토를 걸친 요한은 한 손을 머리에 대고 고행을 자처한 사람처럼 손으로 턱을 괴고 앉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듯하다. 고독하고 우울한 요한은 앞으로 전개될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고 있다. 요한의 붉은색 망토는 피와 희생의 상징이다. 붉은색은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희생이나 완결 등 긍정적인 대상으로 존중받는 색상이 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며 마시는 빨간 포도주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따라서 붉은색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수난을 의미한다.

광야에서 혼자인 그의 옆에 놓인 기이한 식물 줄기 끝에는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있다. 까마귀는 검은 깃털과 동물의 사체를 먹는 습관 때문에 부정하고 흉조로 전해지지만, 사람에게 유익한 도구, ‘하느님의 봉사자’로도 의미를 가진다. 곤경에 처한 예언자 엘리야가 아합왕을 피해 주님의 말씀대로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크리 시내로 가서 머물렀을 때, “까마귀들이 그에게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날라 왔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날라 왔다.”(1열왕 17,6) 그림에서 까마귀는 요한 세례자가 “주님의 길을 곧게 내기” 위해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 람임을 강조하고 있다.

왼쪽 계곡(요르단강)은 들판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져 산을 만나고 하늘과 연결된다. 보스의 특별한 상상력은 이국적인 식물과 야생 동물과 다양한 조류의 묘사에서 발휘되고 있다. 요한의 뒤 배경에 풀을 뜯는 사슴은 생명의 하느님을 그리워하며, 만나기를 갈망하는 충실한 신자,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하느님 백성을 상징한다. 멧돼지는 악마의 힘을 상징한다. 보스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선과 악의 반영인 것이다.

무엇보다 그림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앞에 놓인 어린양이다. 고행의 상징인 맨발을 한 요한 세례자는 오른손 검지로 몸을 숨긴 듯한 어린양을 가리키고 있다. 어린양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히에로니무스 보스,
 <명상 중인 요한 세례자>
 1489년경, 목판에 유채,
 마드리드 라자로 갈디아노 박물관

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병고를 대신 지고 자신을 속죄 제물로 온전히 내어놓으신다.(이사 53,10) 어린양은 광야에서 고독하게 묵상하는 세례자 요한에게 사랑스러운 애완용 동물처럼 동반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또한 그는 마치 우리를 향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요한 1,29)이신 예수님이 하느님께 피의 제물로 바쳐진 구세주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

요한 세례자의 등장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요한 1,6), “빛을 증언하는 사람”(요한 1,7), “신랑의 친구”(요한 3,29)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시키기 위함이다. ☹



Cross [kraws, kros] noun.

1. a structure consisting essentially of an upright and a transverse piece, used to execute persons in ancient times.
2. the Cross, the cross upon which Jesus died.
3. the Cross as the symbol of Christianity.



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